한락연렬사와 그의 '격언정'

한락연 서거 77주년 추모행사 치치할서

▲ 격언정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긴 행사 참석자들

7월 30일 오전, 흑룡강성 치치할시 룡사공원 격언정(음악당) 앞에서 한락연 서거 77주년 기념 추모행사가 뜻깊게 펼쳐졌다. '혁명선렬을 기리며 애국정신을 고양하자'를 주제로 한 추모행사는 치치할시조선족한락연연구회와 치치할시조선족문화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는바 치치할시 여러 조선족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치치할시조선족한락연연구회 리금숙 부회장이 한락연렬사의 혁명사적을 소개했다. 이어 앞가슴에 흰 꽃을 단 일동은 한락연의 생전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혁명정신을 이어받을 각오를 다지며 머리를 깊이 숙여 애도를 표시했다.

치치할시조선족한락연연구회 회장에 따르면 룡사공원의 격언정(格言亭)은 한락연렬사가 설계하고 건축한 것이다. 룡사공원은 1904년에 청정부가 가장 일찍 건설한, 중국 근대 원림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원으로서 치치할시의 랜드마크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공원의 격언정은 1929년에 치치할시정부 시정국 공정과 과원 겸 룡사공원의 감리(원장)였으며, 미술업계에서 중국의 '피카소'로 불리우는 인민예술가이고 세계 반파쑈투사이며 중국 미술계의 첫 공산당원이며, 중국 조선족으로서 가장 일찍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중국공산당의 저명한 정치활동가인 한락연렬사가 생전에 설계하고 건축한 것이다.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백색의 정자 건물은 10메터 높이에 정면은 삼각형으로 설계되였는데 그 우에 시계판 모형이 박혀있어 처음에는 이 정자를 '종정'(钟亭)이라고도 불렀다. 격언정이 수건되여서는 정기적으로 명언 경구가 쓰인 족자를 걸어놓아 사람들에게 계발을 주고 교화하는 장소로 되였는데 이것이 바로 격언정으로 변신된 계기가 되였다.

격언정은 올림푸스산에 있는 고대 그리스 예술의 최고 성취를 대표하는 아테네 신묘를 축소, 간소화하여 예술처리를 거쳐 설계한 것인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원래의 격언정 앞에 있는 녀장(女墙)에는 예서체로 된 '락원'이란 두 글자가 박혀있어 당시 암흑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동경의 등불이 되여 설계자의 락관적인 일면을 보여주었다.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행사 참석자들은 그 당시에 건축된 미술관 그리고 구쏘련령사관 옛터 건물 안에 진렬된 한락연 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이번 활동에는 치치할시조선족한락연연구회와 치치할시조선족문화원의 임원들 외에도 치치할시 선명예술단, 조선족합창단, 장백산예술단, 선명촌무용단, 메리스구 선명촌 등 여러 단위와 사회단체의 책임자들과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치치할시문화활동쎈터관리위원회 김종련 부회장은 사적관을 돌아본 후 이번 활동에 참가하여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같은 조선족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자호감을 느낀다. 앞으로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 흑룡강신문

심양시 조선족 녀성들 -

찬란한 중화문화의 매력에 흠뻑 도취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는 지난 7월 26일 '타임슬립(穿越)'을 주제로 한 제7기 독서회 활동을 조직하고 료녕성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중화 5천년의 우수한 문화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서향원은 2017년 8월에 설립되였는데 매일 책을 읽고 듣고 책 속의 좋은 글귀, 좋은 문장을 필사하였으며 또 해마다 여러 주제와 다양한 형식으로 독후감 발표, 강좌 경청 등 독서활동을 조직해 회원들의 독서 열정을 끌어내고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데 일조해왔다.

올해는 기존의 단순 열독에서 벗어나 료녕성박물관을 찾아가 중국고대구리거울전, 중국고대화폐전, 료나라도자기전, 만족민속전, 고대력대도장전, 고대료녕전시, 청명옥기전, 진품관, 청명도자기전 등 여러 전시를 돌아보며 중화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학습하는 활동을 조직해 회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리경자 회장은 총화에서 "독서와 학습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지행합일의 리념을 실천해야 한다. 올해는 력사의 선률에 따라 옛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중화민족의 우수하고 찬란한 문화를 되돌아보고 학습하는 형식으로 독서회를 진행했는데 회원들 속에서 좋은 반향을 가져와 긍정적이였다."고 밝혔다.

/ 료녕신문

나시족 상형문자 '동파문자'의 미

-운남 려강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

▲ 동파문자로 '행진중국'을 써서 보여주고 있는 나시족 상형문자 회화 체험관 관장(왼쪽)

일전 인민넷 취재팀은 운남성 려강시 나시족 상형문자 회화 체험관을 방문해 동파문자(나시족이 사용하는 상형문자)로 만든 예술품들을 마주했다. 이 예술품들은 지난 세월을 조용히 기록하며 한 민족의 번영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

동파문자는 나시족 전통 문자로 '살아있는 화석' 문자로도 일컬어진다. 상고시기 나시족 조상들은 나무를 보면 나무에 그림을 그리고 돌을 보면 돌에 그림을 그렸다. 이 과정에 감정과 지식 그리고 경험이 구체적인 문자로 변천하게 되였다. 한획 한획, 한점 한점이 려강의 산닥나무로 만든 동파종이 우에 씌여지며 대대로 이어져온 것이다.

"나시족의 상형문자인 동파문자는 1,400여개 글자로 구성되며 기록 류형도 700여종에 달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나시족 삶의 여러 측면을 기록하고 있다." 나시족 상형문자 회화 체험관 관장 화윤원이 설명하는 말이다.

긴 세월 동안 동파문자는 나시족의 삶에 융합되여 려강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였다. 현지의 나시족들은 동파문자로 간단한 메모, 장부 작성은 물론 편지를 쓰기도 한다. "동파문자는 려강의 문화기호의 일종으로 전 세계에 려강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화윤원 관장은 "문자는 소리가 없지만 활력이 넘치는 생명을 부여해준다."고 보충한다.

려강 관광이 개발되면서 동파문자도 회화, 패션, 문화창의 상품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매력을 뽐내고 있다. 현재 동파문자로 디자인된 문화창의 상품은 2,000여종에 달한다. 려강을 찾는 관광객들은 동파종이로 만든 노트를 구매하는데 동파문자로 속표지에 덕담을 써줄 것을 가게의 동파 문화 계승자에게 종종 요청해온다. 동파문자의 독특한 필법이 디자인과 융합되면서 예술성과 감화력 모두를 갖추게 된 때문이다.

/ 인민넷

연길시 여러 민족

민족단결 문화선전 진지 적극 구축하며

연길시의 사회구역들 가운데서 장서량이 가장 많고 규모가 가장 큰 연길시 공원가두 원길사회구역 중화민족 전통문화 체험점의 '석류씨 서옥'은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학습하는 활동중심으로 되였다.

그리고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의 생방송 '인터넷+민족단결' 플래트홈은 연길과 강소성 무석시의 교류 공동건설 기제 탐색을 위해 유익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고 건공가두 연홍사회구역에서는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함께 국가통용언어문자를 학습하면서 친선호조의 감정 뉴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남가두 백산사회구역의 전통문화 원소가 가득한 왕홍 출책지 '미니공원'은 여러 민족 군중들이 상호 교류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좋은 장소로 되고 있다…

중화문화는 민족단결의 혈맥이며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이기도 하다. 최근년간 연길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는 것을 주력점으로 하여 풍부하고 다원적인 민족단결 문화선전 진지를 적극 구축하였다.

공원가두 원길사회구역 중화민족 전통문화 체험점에서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함께 수공 꽃모자 제작 강습을 받는가 하면 철남구역에 위치한 건공가 연홍사회구역 활동실에서는 국가통용언어문자를 배우는 수업시간에 여러 민족 주민들이 서로 언어문자를 배워주고 시정하면서 즐거운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선전 활동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우호적이고 조화롭게 서로 돕는 감정적 뉴대로 되였다. 연길시의 더욱 농후한 민족단결 분위기는 문화선전 활동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원화 민족단결 문화선전 진지에서 응집력을 한층 더 승화시키고 있다.

"이곳은 민족 복식과 문화 체험구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일부 관광객을 '홍석류의 집'에 초청하여 중화 전통문화, 연변 문화, 여러 민족 문화를 리해하게 하는 동시에 민족 복식을 입고 다른 민족의 풍토인정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에서는 지역을 뛰여넘는 '인터넷+민족단결' 생방송을 진행함으로써 강소성 무석시의 가두와 사회구역 주민들이 연길시의 사회구역 건설과 민족단결 문화선전 진지에 대해 더욱 깊은 리해와 인식을 가지게끔 하였다.

저녁무렵이면 '푸르고 아름다운 연길', '청년연길'을 목표로 건설된 하남가두 백산사회구역 민족단결 '미니공원'은 등불이 환한데 관할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이 식후 휴식의 한때를 보내기 좋은 장소로 되였다. 사람들은 민족문화 장랑에 마련된 56개 민족단결진보선전 내용들에 매료되여 여러 민족 사이의 우의와 리해를 깊이하고 있다. 문화적인 상호 침투로 구축한 행복 가원은 연길시 여러 민족 군중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현재 연길시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골족 등 32개 민족의 도합 68만명 인구가 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은 서로 돕고 영향주고 있는데 민족단결진보 건설 사업은 마치 한송이의 아름다운 석류꽃처럼 활짝 피여나 알찬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향후 연길시에서는 계속 다원화 선전을 의탁으로 42개 사회구역 문화선전 써비스 진지와 460여개 실물실경 원소를 담체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광범위하게 전파할 타산이다.

/ 연변조간신문

은장신구가 화려한 이족, 전통의상 축제 개최

제1회 이족 전통 홰불·은장신구·의상 축제가 지난 7월 22일 사천 포타현에서 열렸는데 40개 팀의 2,000여명이 참가했다.

포타현은 '이족 은장신구의 고장'으로 불리며 매년 중요한 절기가 되면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이족 아가씨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 신화넷

광서 룡승 묘족인들의 '유차 만들기'

뜨거운 솥에 식용유를 붓고 차잎을 볶아 향을 낸다. 생강 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넣은 후 끓여서 걸러낸다. 그 물을 볶은 쌀, 볶은 땅콩, 볶은 옥수수, 볶은 노란콩과 파가 든 그릇에 부으면 따끈한 유차(油茶)가 완성된다. 방안에는 향긋함이 넘쳐나고 웃음꽃도 피여난다.

이는 광서 룡승 각족자치현 위강향 부롱촌 묘족마을의 유차 제조 과정의 일부로서 흔히 '타유차'(打油茶)라고 일컫는다. 현지 주민들의 하루 세끼마다 늘 함께하는 음료일 뿐 아니라 일년 사계절 손님을 대접하는 필수품이기도 하다.

2018년 '룡승 묘족 유차 제조기술'은 자치구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였다. 최근 몇년간 이곳은 유차를 주제로 유차 축제와 같은 현지 특색 행사를 통해 갈수록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현지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 인민넷

손님에게 대접할 유차를 준비하는 묘족 녀인

정 정

8월 1일 3면 〈8.1 건군절의 유래와 의의〉 제5자연단 제5행의 "같은 해"는 "1933년"의 오식이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 편집부